

7/4(월) 시편 120–128편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①]

120–134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모음집입니다.

성전에 오르는 순례자들의 실제 삶은 전쟁 같습니다.

하나님의 순리대로 살아가려 애쓰지만 녹녹치 않습니다.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 죽을 고생을 하고(120:2),

물고 뜯는 사람들 가운데서 벼텨내느라 진이 빠집니다(120:5–6).

하나님의 방식과 평화를 위해도, 세상은 싸우자고 덤벼듭니다(120:7).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120:1–2, 124:8)”

시인은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91편 참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지혜/능력/도움/축복에는 한계가 없습니다(121:3–8).

하나님 없이는 모든 계획과 노력이 헛됩니다(127:2, 128:2).

가정과 출산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127:3–4, 128:3, 6).

순례자들은 멸시와 조소로부터 등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123:3–4).

주님의 종이니 <주인>께서 책임져 주십사 간구합니다(123:2).

하나님 없이는 지나올 수 없었던 과거를 회상하며(124–126편),

참된 형통과 옳은 행실이 함께 하기를 간구합니다(125:4–5).

성전에 오르는 것은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로의 여정이며(122:3),

예배자인 형제/자매/이웃들이 하나 되는 여정입니다(122:8, 133:1).

순례자들은 지방에서 해결하지 못한 분쟁들을 예루살렘으로 가져와

왕립 재판소로 이송, 최종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122:5).

성전에 올라가는 길은 <영적인 여정>인 동시에

실제 <사회 정의>가 구현되길 소망하며 오르는 복된 여정이었습니다.

나는 어떤 마음으로 주의 전에 오릅니까?

❶ 피난처 되신 주님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올라갑니까?

❷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자로 살 것을 결단합니까?

시편5권 (107–150편)

편	유형	편	유형
107	공동체 감사시	129	공동체 탄식시
108	혼합유형 (=57:1-11, 60:5-12)	130	개인 탄식시(참회)
109	개인 탄식시	131	신뢰의 노래
110	왕조 시편	132	다윗계약 제의기도문
111	찬양시(아크로스틱 알파벳)	133	지혜시편
112	지혜시(아크로스틱 알파벳)	134	제의기도문
113	찬양시	135	구속사 시편(찬양시)
114	찬양시	136	구속사 시편(찬양시, 공동체 감사시)
115	제의 기도문	137	공동체 탄식시
116	개인 감사시편	138	개인 감사시
117	찬양시	139	개인 탄식시(지혜시)
118	개인 감사시(왕조)	140	개인 탄식시
119	토라(지혜) 시편	141	개인 탄식시
120	개인 탄식시	142	개인 탄식시
121	신뢰의 노래	143	개인 탄식시
122	시온의 노래	144	왕조시편(1-11)
123	공동체 탄식시	145	찬양시(아크로스틱 알파벳)
124	공동체 감사시	146	찬양시
125	신뢰의 노래(공동체 탄식시)	147	찬양시
126	공동체 탄식시	148	찬양시
127	지혜시편	149	찬양시
128	지혜시편	150	시편서 결론 송영